

길

마음이 통하는
VOL.10



글로벌 리포트
UCC, 한 - 베트남
다문화 가정 화상상봉 진행

기획특집
보이지 않게 우리를 움직이는 그림자, 착각
KTTU 클로즈업 01
막을 내린 'LTE 주파수 경매'를 돌아보다
현장 24시
수도권강남고객본부 사내채널운영부 이난영 조합원

길

마음이 통하는
VOL.10



오늘의 열매는 내일의 씨앗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무더위도 어느새 한풀 꺾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물씬 감돕니다.
한낮의 태양이 여전히 뜨겁지만 여름과는
다른 굳건함이 느껴집니다.

가을 햇살은 오희백과를 영글게 하는 태양의 에너지입니다.
이 가을별을 온전히 받아 낸 과실만이
담스러운 열매가 되어 돌아옵니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야만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편 자신의 재능이나 노고와는 상관없이 실패를
맞보기도 합니다.
가뭄이나 홍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뜻밖의 재난을 맞기도 합니다.

피 땀 어린 노력과 정성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의 결실이 실한 알곡이 아니라 해도, 낙담하기엔 이릅니다.
모든 열매는 새로운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실한 열매일지라도,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결실의 기쁨을 만끽할 때,
그리고 새로운 토양을 마련할 때입니다.
오늘의 열매를 내일의 씨앗으로 삼고,
황폐한 땅을 기름지게 일굴 때입니다.

이듬해, 더욱 풍요로운 결실을 기대하며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준비합니다.

Contents

발행인 | KT노동조합 위원장 정운모 편집인 | KT노동조합 정책실장 차완규
발행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KT노동조합 031-727-2835
발행일 | 2013년 10월 8일(격월간) 제작 및 디자인 | KT문화재단 02-3414-2053
인쇄 | 애드그린(주) 02-498-6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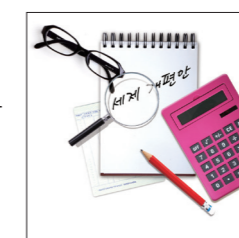
04 KTTU NEWS



12 기획특집
보이지 않게 우리를 움직이는 그림자, 착각



08 KTTU 클로즈업
막을 내린 'LTE 주파수 경매'를 돌아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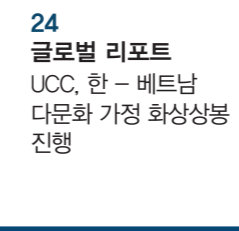
09 2013 10 vol.10



16 KTTU 클릭
정부의 세계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18 현장 24시
수도권강남고객본부 사내채널운영부 이난영 조합원



22 노동계 이슈
ICT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요건



24 글로벌 리포트
UCC, 한 - 베트남 다문화 가정 화상상봉 진행



28 길따라 멧따라
소금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보물섬, 증도

32 그림과 대화하기

KTTU news



2013년 하반기 리프레시 휴직 시행



KT노동조합은 장기근속 조합원 대상으로 자기계발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성 향상 및 동기부여를 위해 2013년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리프레시 휴직을 시행합니다.

- **주요 내용**
 - 대상자 : 전직원(상무보 이상, 계약직 제외)
 - 휴직신청 기간
 - 10년 이상 근속자 : 6개월
 - 20년 이상 근속자 : 1년 또는 6개월
 - 절차 : 신청 후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휴직자 확정
- **주요 일정**
 - 리프레시 휴직 시행공고 : 08.09(금) ~ 08.16(금)
 - 각급 부서별 지원서 접수 : 08.09(금) ~ 08.16(금)
 - 인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 : 08.19(월) ~ 08.21(수)
 - 선발자 최종 확정 및 발령 : 08.23(금) (9.1일자 발령)
 - 업무 인수인계 : 08.26(월) ~ 08.30(금)
 - Refresh휴직 시행 : 09.01(일) ~

2013년 8월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대부자 선정

노동조합과 회사는 2013년 8월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대부자를 선정하였습니다.

- **주택자금**
 - 선정접수 : 27점
 - 선정인원 : 51명(신청자 대비 86.4%)
 - 대부금액 : 1,710백만원
- **생활안정자금**
 - 선정접수 : 29점
 - 선정인원 : 30명(신청자 대비 94.5%)
 - 대부금액 : 466백만원

고객서비스직 / Sales직 성과급 체계 합의

KT노동조합과 회사는 2013년 단체교섭에서 고객서비스직과 Sales직 채용을 합의하여, 현재 약 500여 명이 신입사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을 합의하여 공지합니다.

- **고객서비스직 : 200여 명**
 - 고객서비스직 B형 신설 : 10.1 시행 (1년 이상 근무자 중 본인 의사에 따라 A형 → B형 이동)
- **Sales직 : 유통영업(200명), 리텐션(100명)**
 - 유통영업 : 본부 마케팅부 소매강화팀 내 매장훈련 TFT
 - 리텐션 : 강북, 강남, 서부, 부산, 대구, 전남 지역본부 내 사내 채널담당 사내채널운영부 내 TFT
- **주요미션**
 - 유통영업 : 대리점 대상 교육훈련과 실전판매 코칭을 통해 매장 생산성을 개선시키는 세일즈 코칭
 - 리텐션 : 전담고객 Care 및 유지, 대상고객 판매영업 활동

2013년도 고객서비스/sales직 신입사원 특강



KT노동조합은 지난 13일(화) 원주리더십아카데미에서 열린 하반기 일반직 신입사원 특강에 이어, 오늘 21일(수)은 대전인재개발원에서 고객서비스직 200명, sales직 290명(유통영업 199명, 리텐션 91명) 등 총 490명(남녀비율 7:3)을 대상으로 신입사원 특강을 실시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된 고객서비스/sales직 신입사원들을 환영하며 "KT노동조합과 KT의 빛나는 일꾼들이 되어 달라"고 격려했다.

고객서비스/sales직 490명 선발

노동조합은 지난 5월, 2013년도 단체교섭을 통해 고객서비스직 및 sales직 채용을 합의한 바 있다. 개통 및 A/S, 영업 위주의 고객 서비스직과 함께 이번에 신설된 sales직은 유통영업과 리텐션 위주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Sales직 신입사원 중 유통영업담당은 본부 마케팅부 소매강화팀 내 매장훈련 TFT에 배치되며, 리텐션담당은 강북·강남·서부·부

산·대구·전남지역본부 내 사내채널담당 사내채널운영부 내 TFT에 배치된다.

또한, 유통영업은 대리점 대상 교육훈련과 실전판매 코칭을 통해 매장 생산성을 개선시키는 세일즈 코칭을 하게 되고, 리텐션은 전담고객 Care 및 유지, 대상고객 판매영업을 맡는다.

노동조합 앞장서 성과급체계 개선 합의

이날 특강 또한 먼저 ▲KT노동조합 역할 동영상 시청 ▲노동조합 구성과 조직 소개 ▲KT복지제도 설명 ▲상조지원서비스 안내 등으로 진행했다. 강사로 나선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은 KT노동조합 노동운동의 31년간 흐름을 상세히 설명하고 △연간 주요행사 △일상 조합활동 △홍보 및 봉사활동 △그룹노조협의회 및 기업 간 노사협의체 UCC 활동 △한국노총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활동 등을 소개했다. 특히 최근 노동조합 요구로 고객서비스직 및 sales직 성과급체계 개선을 합의한 것에 대한 설명과 복지·상조 서비스에 대한 혜택 안내가 신입 조합원들의 큰 공감을 샀다. 한편, 이날 특강에서도 현재 KT그룹노조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주파수경매 공정성 촉구 투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추가됐다.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안내



스트레스가 우울증 및 각종 성인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KT노동조합과 회사는 조합원 등 전 임직원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드리고, 나아가 일과 개인 생활의 조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전담부서(심리상담센터) 신설 ▲정신건강 증진 기업문화 확산 ▲Mental 건강관리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활동 등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 심리상담센터 개설

- 목적 : 카운슬링(교육), 콘텐츠 제공, 심리 상담
- 장소 : 분당사옥 2층
- 개설 : 9월말
- 구성 : 상담센터장 1명, 심리상담사 2명

■ 정신건강 증진 기업문화 확산

- 홍보 동영상(KBN 등) 방영 : 9월 ~
- 전자 게시판 활용 등 정기 홍보
- 관리자 인식제고
 - 목적 : 현장 관리자의 정신건강관리 중요성 인식 제고
 - 방법 : 정신건강 관리 중요성 강조 이메일 발송, 해당부서 내 정신건강증진 리더에 생명사랑지킴이(GateKeeper) 임명장 수여, 현장과 지역정신건강센터 MOU 체결
- 정신건강증진의 날 행사(매월 4일)
 - 일시 : 매월 4일, 08:10 ~ 08:50(40분간)
 - 장소 : 지역고객본부 지부 사옥(대강당)
- **Mental 케어 프로그램 운영**
 - 정신건강증진 설문조사 시행
 - 기간 : 8.30(금) ~ 9.12(목)
 - 대상 : 전 직원
 - 향후 일정 : 심층검사(9월말), 대면상담(10월 중순 ~ 11월말 예정)
 - 휴대용 혈관스트레스 검사장비 보급
 - 장비 : 혈관 스트레스 측정기
 - 대상 : 지역고객본부별 2대 및 4대 사옥별 1대 배치
 - 시기 : 9월(중)
 - 힐링 프로그램 시행(2013년 시범 예정)

그룹 PS지급 질권설정 해지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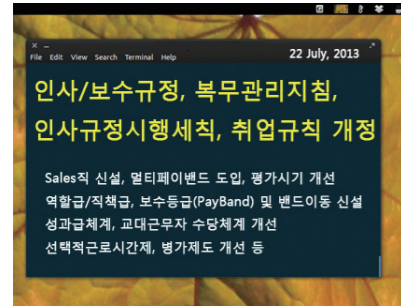


지난 2013년 5월 24일 지급된 그룹 PS는 초기 2년 동안 매매를 할 수 없도록 질권 설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질권설정을 해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권 해지 대상

- 대상자 : 퇴직자 및 사망자
 - 퇴직자 : 퇴직확인서 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망자 : 사망진단 확인서 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타 증명서
- ※ 질권설정일(5월 24일) 이후 발생한 사망자 및 퇴직자에 한하여 소급 적용
- 시행일 : 8.28(수) ~

인사/보수규정, 복무관리지침, 인사규정시행세칙, 취업규칙 개정안내



2013년 인사보수제도 개선협의회 합의 사항 관련하여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무관리지침, 인사규정시행세칙, 취업규칙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인사규정
 - Sales직 신설 및 멀티페이밴드 도입에 따른 밴드이동 정의
 - 인사규정 시행세칙
 - 평가시기 개선 : 역량평가를 매년 11월 → 연간기준에 의해 실시
 - 보수규정
 - 멀티페이밴드 도입 : 역합급/직책급 신설, 보수등급(PayBand) 및 밴드이동 신설
 - 성과급체계 변경 : 전사성과급 기준 변경 및 담당성과급 신설
 - 교대근무자 수당체계 개선 :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변경 등
 - 복무관리지침
 - 선택적근로시간제 개선 : Core Time (11시 ~ 15시)
 - 병가제도 개선
 - 대상일수 변경 : 연간누계 70일까지 → 동일질병에 누계 70일까지
 - 진단서 발급 기관 및 복무신청 기준 명확화
-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상반기 회계감사 총평



KT노동조합은 8월 30일(금)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2013년도 상반기 중앙본부 회계감사 총평'을 실시했다. 중앙회계감사위원회 임태복 대

표위원은 총평을 통해 "먼저,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한 뒤 "지난 5일 동안 2013년 상반기 지출결의·각종 대장·통장·첨부 자료 등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조합비가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집행되어 있었다"면서 "특히 전년도 지적 사항들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소한 것이라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정윤모 위원장은 "저를 중심으로 중앙상집 모두 조합비를 철저히 투명하게 집행한다는 당연한 입장에 변함없다"고 강조한 뒤,

"지난 5일 동안 무덥고 습한 늦더위 가운데서도 묵묵히 회계감사에 임해주신 중앙회계감사위원들께 전 조합원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TM 제도개선 운영기준 공지



2013년 인사보수제도 개선 합의관련으로 TM제도 및 인사배치와 관련된 내용을 확정하여 공지합니다.

- 직종 내 TM 원칙
 - 유사직종/연관직종으로 이동은 TM 시행
 - 타직종 이동은 전략배치로만 가능
- 정기적 TM 시행
 - 매월 초 TM공모 : 1일 ~ 7일
 - 심사 및 검증 : 8일 ~ 19일
 - 선발 및 발령 : 20일 ~ 31일

2013년 9월 성과급 지급안내



2013년 9월 성과급을 다음과 같이 지급함을 안내해드립니다.

- 지급기준
 - 지급산식 : 지급기준액 x 지급률
 - 지급기준액 : 월 기준급

- 지급률
 - G직 : 150% ± 75% (직책자: ± 100%)
 - A직 : 105% ± 25% (직책자: ± 37.5%)
 - C직 및 Sales직은 평균 지급률(61.25%)에 전월 실적을 반영하여 지급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G직, A직, C직 및 Sales직 직원 (청원경찰 포함)
- 지급일 : 9.16(월)

2013년 3/4분기 명예퇴직 시행공고

인사규정 제26조에 의거 2013년 3/4분기 명예퇴직을 시행합니다.

- 적용대상 : 실 근속기간 20년 이상이며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자 (9.30 기준)
- 접수기간 : 09.16(월) ~ 09.26(목)

명예퇴직 시행공고



- 심의기간 : 09.27(금) ~ 09.30(월)
- 퇴직발령 : 10.1(화) 자
- 시행절차
 - 소속기관 인사담당자 면담

- 명예퇴직 신청서류 작성 및 시스템 등록
- 소속 기관장 면담 및 추천(심사 의견서 첨부)
- 인사위원회 심의
- 명예퇴직 발령
- 기타사항 : 명예퇴직금 지급수준은 보수규정 제39조에 의함

2013년 2차 퇴직연금 중도인출 안내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관심있는 조합원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퇴직연금 제(DB형) 가입 직원 중 법정 중도인출 사유를 충족(임원, 상무보, 전문 컨설턴트/계약직 제외)

- 제외대상
 - 급여/ 퇴직금 압류자
 - 연대보증을 통해 회사(기금) 대부금을 받은 직원
 - 단 10월 8일까지 보증보험 대체 또는 전액 상환 완료시 가능
- 신청유형(택일)
 - DC형 : 전환일 기준 전후 적립금 모두 DC형으로 운용
 - 혼합형(DC+DB) : 전환일 기준 이전 적립금 DC형 + 이후 적립금 DB형 운용
-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가입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시행일정
 - 금융기관별 중도인출 신청접수 : 9.25(수) ~ 10.4(금)
 - DC전환 금액 확정 및 DB상품 해지 : 10.23(수)
 - DC전환일 : 10.29(예정)
 - 중도인출 가능일 : 11.4(월)이후

2013년 추계 체육행사 실시

2013년 추계 체육행사를 시행합니다. 각 지방본부에서는 소속 지부



실정에 맞게 진행하시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 기간 : 10.7(월) ~ 10.31(목), 근무시간 외 [토·일] 시행금지
- 대상 : 재직중인 임직원 및 계약직
- 행사 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 템플스테이, 숲길걷기, 요가 등 힐링프로그램
 - 연극/콘서트 등 공연관람, 스포츠/전시회 관람 등 문화활동
 - 복지시설 자원봉사, 환경/문화재 보호 등 사회공헌활동
 - 생활체육, 레크레이션 등 건강증진활동
 - GWP 차원에서 조합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행사내용 결정
 - 고객서비스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적의 시행

2013년 하반기 창업지원 휴직시행



재직 중 창업도전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분야에 대한 능력개발 및 경력전환 체험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13년 하반기 창업지원 휴직을 시행합니다.

- 지원자격 : 명예퇴직 자격이 되는 직원 중 희망자
 - 최근 6개월 이상 정상 근무자
- 교육파견 복귀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만료자
- 대상분야 : 제한 없음
- 휴직기간
 - 휴직기간 : 최소 1년 6개월 ~ 최대 3년 6개월 (의무휴직기간 : 1년6개월)
 - 급여 : 최초 휴직일로부터 1년간 기준연봉월정액 100%만 지급
- 향후일정
 - 희망자 신청 : 9.30(월) ~ 10.15(화)
 - 예심의 : 10.15(화) ~ 10.18(금)
 - 분심의 : 10.21(월) ~ 10.24(목)
 - 최종선정 : 10.25(금)
 - 1일 워크샵 : 10.28(월)
 - 협약체결 : 10.29(화) ~ 10.30(수)
 - 휴직발령 : 11. 1(금)

막을 내린 'LTE 주파수 경매'를 돌아보다

kt의 '황금주파수' 확보 성공과 정부의 경매 방식 한계 평가

주파수 경매 결과

낙찰자	주파수 대역			합계
	C2블록(1.8GHz)	D2블록(1.8GHz)	B2블록(2.6GHz)	
낙찰가	10,500억원	9,001억원	4,788억원	2조 4,289억원
최저경쟁가격	6,738억원	2,888억원	4,788억원	1조 4,414억원



지난 8월 30일, 드디어 LTE 관련 주파수 경매 최종 결과가 발표 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밴드플랜2가 승자가 됐으며, 이동통신 3사 모두 각 주파수를 가져 갔다고 밝혔다. 이로서 시작부터 통신 관련업계는 물론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던 이번 주파수 경매는 끝이 났다.



LTE 주파수 경매 세부 결과 내용으로는 kt가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LTE 인접 대역인 이른바 '황금주파수'인 1.8GHz 대역 15MHz 폭 D2블록을 9,001억 원(시초가 2,888억 원)에 낙찰 받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각각 1.8GHz 대역(C2블록)과 2.6GHz 대역(B2블록)에서

LTE 주파수를 추가 확보했다. 애초 금번 주파수 경매안은 kt가 제시한 입찰 가격이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다른 블록에 제시한 입찰 가격의 합을 상회할 경우에만 낙찰 받도록 해 kt는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낙찰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해서 공정 시비가 일기도 했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두 사업자가 현실적으로 담합을 해 해당 주파수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대 입찰자인 kt의 경매 참여와 낙찰을 저지할 것이라는 많은 우려를 낳기도 했었다. kt가 인접 대역인 D2블록 확보에 성공한 것은 대결구도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파수 경매 시작부터 kt를 함께 견제하며 담합 의혹까지 받았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경매 중후반에 이르자 밴드플랜2의 C2블록에 서로 눈독을 들이다 결국 연합이 깨지고 경쟁체제로 돌아섰다. 결국 LG유플러스는 B2블록에 최종 밀봉 입찰해 실리를 챙기고, SK텔레콤은 C2블록을, kt는 처음부터 목표로 하던 D2블록을 차지했다.

주파수 경매 결과에 대한 각 통신사의 입장

kt는 경매 입찰 전 소위 '승자의 저주'를 경계했다. 정부의 할당안 대로 경매가 진행될 경우 경쟁사들이 담합해 낙찰가를 높여 kt는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올며 겨자 먹기'식으로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낙찰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주파수 경매는 일단 우려되었던 '돈의 전쟁'은 피했다는 분석이다. 시작 전 최대 3조원대의 과열 경매가 될 것 이란 예상과 달리 비교적 낮은 입찰가 수준으로 마무리돼 각 통신 사업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주파수 경매가 종료되자 각 통신 사업자들은 경매 결과를 놓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향후 시장 전망에 저마다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kt는 이번 D2블록 낙찰 결과에 대해 앞으로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LTE 품질 향상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존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아도 단기간에 광대역 LTE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표했다. SK텔레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필요로 하던 대역의 블록을 확보한 것을 자축했으며 LG유플러스도 비록 1.8GHz 인접대역 황금주파수를 차지하지 못했지만 경쟁사에 비해 적은 경매가로 2.6GHz 대역 40MHz 주파수를 확보해 내부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는 분위기다.

kt, 황금주파수 확보로 더 쉽고 빠르게 LTE 광대역화 가능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통신3사는 각자 치열한 싸움을 벌였지만 최종적으로는 kt가 원하던 주파수 확보에 성공하면서 '진정한 승자'가 됐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kt가 인접대역 주파수 확보에 성공하면서 경쟁사보다 더 쉽고 빠르게 LTE 광대역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대역 옆에 나란히 새 대역을 확보하면서 마치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는 분석에서다. 주파수 대역이 2배로 넓어지면 데이터 전송속도 2배로 빨라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쟁사의 LTE-A(LTE-어드밴스드) 서비스 출시에 다소 밀렸던 kt가 국내 이동통신 시

장 구도를 바꿀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LG유플러스는 물론 SK텔레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에 kt는 kt만의 황금주파수 광대역 LTE-A의 장점을 적극 알리고 홍보하는데 더욱 주력하고 있다. 나란히 붙어있는 주파수 대역을 확장해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으로 2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고, 기존 방식보다 배터리를 28%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그것이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 LTE폰으로도 단말기 구분 없이 모두 LTE-A의 빠른 속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아울러 kt는 인접대역 주파수 확보로 단기간에 수도권 및 전국 41,000개의 최대 커버리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해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글로벌 표준 주파수 확보로 인해 해외로밍에도 소비자는 타 통신사보다 더욱 편리하고 유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물론 kt가 확보한 인접대역 황금주파수의 낙찰가가 예상보다 높은 편이라 가격 부담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kt가 차지한 해당 주파수가 별도의 투자비용 없이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정 적정가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는 관측도 있다. LTE-A의 조건 중 하나인 CA 기술을 기존 900MHz 대역에서는 간섭 문제 때문에 제대로 서비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번 인접 대역 확보는 kt로서는 타 통신사와 경쟁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파수 할당이 마무리되면서 통신업계의 '속도경쟁'은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파수 경매가 남긴 교훈과 과제

1.8GHz 대역이 포함됐던 이번 주파수 할당은 경매방식으로는 지난 2011년 이후 두 번째다. 해당 주파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다 단말기도 많아서 소위 꿈의 주파수로 불리며 통신업체간 경쟁이 치열했다. 특히 금번 경매는 정부의 룰에 대한 시비와, 해당 주파수를 가장 필요한 입자인 kt가 할당받지 못하도록 나머지 두 통신사가 담합할 것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매 최종 결과만 놓고 보자면 사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의 인접대역 주파수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두 통신사의 입장에서는 경쟁사인 kt가 이를 확보할 경우 조기에 광대역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는 차원에서 입찰가를 올리는 전략을 취했었다. 한편 경매 과정 중간에서는 경매현장에서 습득된 경매 관련 정보가 일부 언론을 통해 외부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금번 주파수 경매는 시작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



LTE-A 상용화를 목표로 위성 및 유/무선 통신 긴급복구 훈련 모습

지만 정부는 경매가 결과적으로 큰 무리 없이 끝이 났고, 각 통신 사업자가 각자의 이득을 챙겼음을 들어 금번 주파수 할당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정부는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통신업계에 할당하는 방식을 복잡한 경매방식으로 선택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정보통신 정책을 펼 여지를 줄였다는 비판은 우선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과거에는 정부가 룰을 정하고 통신사들이 룰을 따르도록 한 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하는 방식을 써 왔지만 이번에는 밴드플랜 자체를 경매를 통해 고르도록 함으로써 룰 자체를 넘겨준 측면이 있다. 공정한 룰을 제시하고 감독해야할 정부가 주파수 경매방식까지 입찰자인 통신업체가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업 간에 담합 등 이해관계에 의해 할당될 여지를 남겨 두었다는 지적이다. 이같이 정부가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분명 문제였다. 이는 정부가 통신에 대한 미래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통신 사업자들이 함께 발전을 이루는 통신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또 다른 이슈는 바로 비용이다. 가령 도로를 넓힐 때 주변 토지를 보상하고 매입하는 비용이 가장 큰 부담인 것처럼 주파수 경매에서도 지나친 비용을 지출하면 정작 서비스를 위한 투자여력이 줄고 소비자에게 요금인상 부담만 생긴다. 이 같은 측면에서 금번 주파수 할당이 원래 취지와 달리 정책적인 면은 배제된 채 가격만 올린 경매였다는 비판도 있다.

경매라는 방식이 표면적으로는 공정하고 시장가치를 반영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돈이 많은 쪽에서 주파수 가격을 지나치게 올려놓아 결국 부담은 통신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경매는 그 과정의 속성상 자연스

럽게 업체 간 과열 경쟁으로 이어져 머니게임으로 쉽게 변질되어버릴 우려가 있다. 그렇게 정상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낙찰 받은 통신 사업자는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주파수 확보 비용을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향후 주파수 할당 정책 개선되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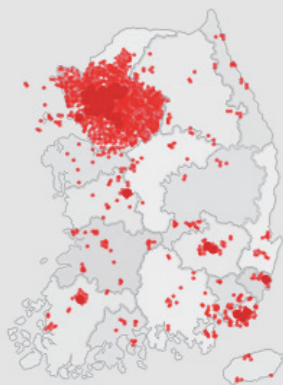
이제는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안 자체가 증장기적인 주파수 정책을 담은 것이 아니라 사업자 경쟁을 부추겨 경매가를 높이는 쪽에만 신경을 썼던 것은 아닌지 엄밀하게 되돌아 볼 시점이다. 정부는 업체 간 경쟁만 부추기는 복잡한 경매안으로 낙찰가만 올리는데 집중했음을 반성해야 한다. 주파수 경매가 미래부 출범 후 첫 핵심정책 현안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점은 더욱 아쉽기만 하다. 정부와 통신 사업자는 향후 주파수 활용과 각 통신업계 이해관계를 잘 고려해 전체 국가 경제 차원에서 주파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2014년 이후로 예상되는 다음 주파수 할당 때도 금번과 같은 방식을 적용할지 면밀히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경매시작 전부터 각종 논란과 시비가 일었던 이번 주파수 경매방식에 대한 보다 철저한 반성으로 다음에는 통신 사업자는 물론 국민에게 실망을 보여주지 않는 주파수 할당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 또한 금번 주파수 할당 이후 시장경쟁 상황이나 주파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주파수 할당 정책에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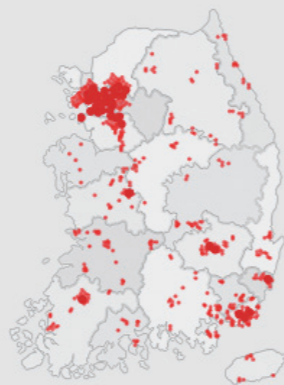
커버리지 예상도(2013.12월)

kt(광대역+CA)



수도권 및 84개시 전국 41,000개

타사(CA)



수도권 및 84개시 전국 32,000개

kt는 이미 촘촘하게 깔린 기존 LTE 기지국을 활용할 수 있어, 새로 전국망을 구축해야 하는 타사보다 더 빠르게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보다 넓고 촘촘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를 움직이는 그림자, 착각

우리는 얼마나 많은 착각을 하며 살아갈까? 착각은 너무나 일상적이다. 며칠 전 본 드라마를 어제 본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복도에 모인 사람들이 나를 험담하고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는 매 순간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 착각하기는 쉽지만 착각의 결과는 강렬하다. 착각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에서나 돈 문제에서 많은 손해를 본다. 또한 쓸데없는 착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스스로 정신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착각은 때로는 개인의 사소한 실수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한다. 어떤 종류의 착각은 결정적인 순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유머] (착각 속에 사는 우리 인생)

남자_못 생긴 여자는 꼬시기 쉬운 줄 안다.

여자_남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면

내게 관심 있어 따라 오는 줄 안다.

아이_떼쓰고 울면 다 되는 줄 안다.

엄마_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성적이 안 좋은 줄 안다.

대학생_철이 다 들었다고 생각한다. 대학만 졸업하면 세상이 날 알아줄 거라고 안다.

부모_자식들이 나이가 들면 효도할 줄 안다.

연인_결혼만 하면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줄 안다.

아줌마_나도 화장만 하고 꾸미면 예쁘다는 소리를 들을 거라고 안다.

아저씨_나도 운동 좀 하고 젊게 옷 입으면 오빠 소리 들을 줄 안다.

예비 시어머니_아들이 결혼하면 나는 며느리랑 친구처럼 잘 지낼 거라고 안다.

아내_남편이 회사에서 적당히 일해도 승진이 되는 줄 안다.

남편_살림하는 여자들은 집에서 노는 줄 안다.

사장_직원들을 쫓으면 더 열심히 일하는 줄 안다.

이 글을 읽는 사람_자신은 안 그런 줄 안다.

착각이 가져다 준 비극

1992년 4월 미국 LA에서는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다. LA흑인폭동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는 이 사건은 당시 한인타운은 물론 미국사회에 많은 피해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그 사건의 시작은 작은 착각에서 비롯되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한 40대 재미교포는 음료 진열대 앞의 한 흑인 소녀를 예의 주시했다. 소녀가 자신의 가방 안에 음료를 집어넣는 것을 감시카메라로 본 주인은 그녀를 도둑이라고 생각해 가방을 붙잡았다. 흑인 소녀는 이에 반항하며 폭력을 행사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주인은 소녀를 향해 권총을 쏘았다. 결국 소녀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하지만 CCTV에 찍힌 소녀의 손에는 돈이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카운터 위에는 오랜 지 주스가 놓여있었다. “그것은 착각이었다. 그동안 흑인 강도가 많았기 때문에 피고가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당시 판결문의 일부다. 단한번의 착각이었지만 이는 흑인들의 분노를 불리일으켰고, 이내 폭동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착각에 빠지는 것은 개인만이 아니다. 기업과 같은 합리적인 조직 집단도 착각을 하며, 사회 전체가 어떤 착각에 빠져들 때도 드물지 않다. 여기 우리가 흔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몇 가지 착각의 사례들을 소개한다.

CASE 1 – 결집력이 높은 집단이 빠지는 착각

김대리 : “팀장님, 이번에 우리가 출시한 신제품 왠지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제 주위사람에게 물어보니깐 다들 벌써부터 좋다고 난리예요!”

이팀장 : “사실 뭘로 봐도 우리 제품이 최고지. 고객들도 이를 모를 리가 없어. 경쟁사 신제품은 딱 봐도 별로더라고, 나 같아도 안 써. 역시 우리가 하면 달라.”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을 많이 가졌다든지, 직접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뭔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속한 집단을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차별적으로 혜택을 주려는 강력한 동기를 심리학에서는 ‘내 집단 편애(in-group bias)’라고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내 자식, 내가 다닌 학교, 우리 동네, 우리나라가 더 착하고 훌륭하고, 올바르다고 믿는 경향이 그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내가 속한 집단이 더 잘되도록 어떻게든 도와주고 노력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지역감정이나 연고, 학벌주의 역시 내집단 편애의 대표적 예다.

이러한 착각이 지나치면 자기가 전혀 관련이 없는 일도 자기가 다 통제하고 있다고 믿게 된다. 우리 회사 일이나 내가 속한 부서의 일은 내가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만일 자기가 사는 동네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것도 다 나 덕분이라고 착각하는 지경이 된다.

구성원이나 집단 전체가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면 위기불감증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모두가 스스로를 확신하고, 조심스러워 하지 않고 바꾸려하지 않으니까 위기에 처하는 것이다. 휴대폰 제조사인 노키아가 자타공인 세계1위 기업이 되었을 때, 사실은 그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였다. 왜냐하면 아무도 위협에 제대로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

다. 그 결과 노키아는 스마트폰 시장에 일찌감치 진출하고도 시장을 주도할 기회를 놓쳤다.

어떤 조직이 착각에 빠졌을 때, 착각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은 소수로 전략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하는 올바른 말이나 경고는 다수에 의해서 무시된다. 말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점점 없어진다. 결국 집단 내에서 착각이 다수의 힘을 빌리게 되면 진실 행세를 하고 만다.

CASE 2 – 돈은 언제나 동기부여의 강력한 도구일까?

일 년 넘게 인턴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정식 사원이 된 A씨. 월급은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왠지 의욕이 전과 같지 않다. 업무는 더 수월해지고 돈도 많이 주는데도 뭔가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

A씨는 돈을 적게 받으며 일하던 때엔 “그래도 이 일은 재미있고 내가 좋아하니까”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상황이 좋아지자 오히려 자신의 일에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사례는 사실 인지 부조화 현상의 한 예다. 일에 대한 보수를 많이 받으면 자기가 돈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매력이 점점 감소하는 경우다. 반면 보수를 적게 받으면 설사 맡은 일이 힘들거나, 사소한 일이라도 스스로 일에 대한 매력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내가 돈 때문이 아닌 일이나 회사가 좋아서 또는 미래를 위해 다닌다고 착각하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는 불쾌감을 느끼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합리화를 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자신이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해서 친구에게 자랑 하는데 친구들이 하나둘씩 그 모델의 단점에 대해 이야기하면, 자신은 인지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을 얘기하기 시작한다. 자신은 싸게 샀다는 사실을 내세움으로써 자신의 인지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이나 인센티브가 사람들의 내적 동기를 끌어내는 데 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오히려 그것을 감쇄시켜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행동하게끔 만들기도 한다.

CASE 3 – 현재의 인식 틀로 과거를 재단하다

“이번 감사에 걸린 그 친구, 내 그럴 줄 알았어. 난 역시 사람 보는 눈이 있단니까.”
“거봐, 내 예상이 맞았잖아. 난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쯤.”
- 늘 결과 뒤에야 자신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 말하는 자칭 족집게 도사 박부장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 자신은 그 일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확신을 과대 지각하는 착각을 심리학 용어로는 ‘사후 인식 편향(hindsight bias)’라고 일컫는다. 이미 결과가 나온 상태일 때, 그 결과가 자신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미 그 결과를 예측했다고 믿는 경향을 뜻한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결과를 확신하기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일이 벌어진 후에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CASE 1 - 결집력이 높은 집단이 빠지는 착각

CASE 2 - 돈은 언제나 동기부여의 강력한 도구일까?

CASE 3 - 현재의 인식 틀로 과거를 재단하다

것처럼 착각하기란 쉽다. 이러한 착각은 종종 어떤 대상을 평가할 때 그 대상과 관련된 다른 간접적 특징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후광효과(halo effect)와 결합해 우리의 사회적 착각을 더욱 고착시킨다. 후광효과는 학벌에 대한 그릇된 평가나,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면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가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착각을 뜻한다. 이런 후광 효과는 반대의 경우에도 똑같이 작용한다. 학력이 낮은 사람은 능력이 없거나 지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착각, 중소기업의 제품은 질이 낮고 서비스가 나쁠 것이라는 착각 등이 후광효과가 반대로 작용한 사례다. 조직 내에서 이러한 ‘사후 인식 편향’의 착각이 위험한 이유는 이 착각의 여파로 타인을 비난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부정적 결과에서 이러한 착각은 마치 그 일을 미리 막을 수 있었던 것처럼 느끼게 하고, 타인을 더 비난하게 만든다. 실제로는 예측 불가능했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도 말이다. 사람에게 대한 착각은 특히 위험하다. 그중 부정적인 착각은 더욱 나쁘다. 처음에 그 사람에게 가졌던 기대나 예측의 정확성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긍정적인 착각은 실제 타인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실제 여부를 확인할 기회라도 준다. 하지만 부정적인 착각은 아예 그 사람을 정당하게 평가할 기회 자체를 박탈해버린다. 그래서 항상 자신은 옳았다고 더 큰 착각을 하게 만든다. 이러한 자기 충족적 예언을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조직의 리더들이다. 조직을 이끄는 위치에 있으면 항상 자신은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자신이 그렇게 바라보고 만드는 위치에 있는 것뿐이다.

우리는 매 순간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 감각기관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실재를 있는 그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착각을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존재, 즉 착각하는 존재다. 문제는 타인의 착각은 잘 보이는데 나의 착각은 잘 안 보인다는 점이다. 나는 착각하지 않을 거라는 착각,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착각할 거라는 생각이 가장 치명적인 착각이다. 우리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단한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착각을 인지하고 타인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어주는 것이다. 착각은 잘못하면 자신과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때론 선물이 되기도 한다. 긍정적인 착각은 인간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 마음 안에 갖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착각을 조심해서 잘 다룬다면 자신과 세상을 연결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여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부자·기업 증세 없이, 봉급생활자에겐 세금폭탄



지난 8월,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으로 더욱 관심을 모았던 이번 세제개편은 투자활성화 명목으로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는 대신 중산층 이상 급여생활자의 세금부담을 늘리고, 공제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으로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지금까지 소득에서 비용을 뺀 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공제 과세방식에서, 소득전체에 우선 과세하고 나중에 비용을 반환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노동계는 새로운 세제개편 방식이 사실상 과표 기준을 높이는 것으로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이 늘어난다며 즉각적인 반발을 표했다. 야권과 언론에서도 이른바 '세금폭탄' 공세가 이어지고 반발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7개월 동안 준비했다'던 세제개편안을 4일 만에 "원점 재검토하겠다"며 수정안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수정된 세제개편안 역시 논란의 불씨와 반발은 여전하다.

'유리지갑' 근로소득자 부담 늘리는 세제개편

정부가 제시하는 세제개편 원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서 과세 형평성 높이기 △자녀가 많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환급해주는 '자녀장려세제' 도입 △2015년부터 종교인 과세 실현 △재벌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

한 과세 기준 완화 등이다. 원안에 대한 반발이 일자 정부는 증세 기준을 연간소득 3천4백50만 원에서 5천5백만 원으로 올리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우선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을 '세율 인상(증세)없이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한계'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구체적 세제 강화 방안은 없고 말 그대로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를 겨냥한 세제개편안이라는 것이다. 세수 부족의 심각성은 다 같이 공감하는 바이지만 개편안은 형평 과세와 조세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세제개편의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비과세, 감면 정비 가운데 정부가 가장 속도를 내는 게 소득공제 축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폭은 15%에서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는데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의 70%가량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실상 증세가 이뤄지는 셈이다. 또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공제 방식은 고소득자에 유리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동시에 중산층에게는 불리한 측면이 있긴 하다.

'부자증세' 정공법 피해가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도 많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감 몰아주기에서 제외되는 내부거래 범위를 넓혔기 때문이다. 이는 한 기업 안에서 하던 일을 경영 효율 차원에서 분사한 경우, 일감 몰아주기로 과세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기업들의 반발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세제가 오히려 거꾸로 혜택을 준 것이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경영효율화 차원의 내부거래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벌 대기업의 시장 독점 상황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많은 이슈가 되었던 역외 탈세나 차명계좌 문제 등 지하경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여전히 미흡하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발표되

	MB 정부 때 감세 규모	2013년 세제개편 후 변화(원안)	2013년 세제개편 후 변화(수정안)
1000만원 이하	0	-8	-8
1000~2000만원	-1	-18	-18
2000만원~4000만원	-6	-12	-12
4000만원~6000만원	-27	16	(4000만원 ~ 5500만원) 0 (5500만원 ~ 6000만원) 2
6000만원~8000만원	-65	(6000만원 ~ 7000만원) 16 (7000만원 ~ 8000만원) 33	(6000만원 ~ 7000만원) 3 (7000만원 ~ 8000만원) 33
8000만원 이상	-93	104	104
1억~3억원	-242	204	204
3억원 초과	-1000	865	865

자료 : 국세청의 국제통계연보(각 연도)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8.8, 8.13) 재구성

자 많은 국민들이 적어도 조세회피에 관해서는 국외 금융계좌를 숨겼을 때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기대했지만 이에 대한 보완책은 전혀 없었다. 시급하면서도 거대한 지하경제 세금 문제를 제쳐두고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을 이야기 한다는 건 아무래도 앞뒤가 바뀌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내용 뿐 아니라 그 과정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봉급생활자들에게 세금부담을 더하는 회의에 정작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대표는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요 사안인 세제개편을 정부가 국민과 충분한 논의도 없이 2시간 남짓 짧은 시간에 떠밀리듯 졸속 처리했다고 질타했다.

경제민주화와 역행하는 세제개편 과연 합당한가

정부는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이번 세제개편에 대해서 한발 물러선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노동자 증세'라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인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에서 빼주거나 일부는 혜택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인 관련 세금은 감면해 주는 것은 조세 형평에 분명 어긋난다. 지난 대선 당시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재벌과 1퍼센트 부자들의 강철 금고는 여전히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 한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 대비해 2011년 법인가처분소득은 533%가 늘었는데, 법인세 부담은 겨우 15%만 증가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감면된 법인세를 다시 원상 복구하기만 해도 서민과 중산층의 주머니를 털어 확보할 수 있는 세수의 2배는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국정운영 목표가 경제민주화에서 경기활성화로 바뀌면서 세제 측면에서도 성장 잠재력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오히려 감세 혜택이 집중된 재벌의 배를 더욱 불리는 결과만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지난 정부가 경기를 살린다면 법인세 인하를 밀어붙였지만 기업 투자는 늘지 않고 세수 결손의 부담만 안겨줬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년 대비 올 상반기 부족한 세수 10조 원 중에 절반가량은 법인세에서 줄어든 몫이다. 그런 만큼 재벌과 부유층이 세금을 더 부담하도록 증세라는 정공법을 써야 할 때다. 각종 복지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세수의 증가가 필연적이라 할지라도 그 부담이 부자들보다 보통의 서민과 중산층에게 가중되도록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조세평등주의는 헌법적 가치이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제도를 확대하려면 근로소득자와 중산층 세 부담을 늘리기 이전에 대기업과 고소득 계층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게 맞다. 앞으로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야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되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조세형평성과 과세공평성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조속한 개정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네시스란, kt 가족들의 행복을 여는 새 지평

수도권강남고객본부 사내채널운영부 이난영 조합원



4년여의 개발 끝에 하나둘씩 제 모습을 갖추어가는 차세대 'BIT' 프로젝트. SDP, ERP 등 6단계로 진행되는 BIT 중에서도 단연 핵심 시스템인 BSS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제네시스'라 명명된 새 유/무선 통합 영업지원 시스템은 그 이름에 걸맞게 kt 전산시스템의 신기원을 연 것은 물론, 합병 이후 조직의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 구성원들을 일치시키는 완벽한 화학적 융합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제네시스 전문교육강사 이난영 조합원으로부터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개발자들의 마음으로 일궈낸 그랜드오픈

“제네시스가 오픈하면서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제는 한 배를 탔다'라는 동질감이 서서히 뿌리내리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인터넷 상품을 팔면 ICIS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모바일 상품을 관리하기 위해선 N-Step을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시스템이 분리 운용되다보니 kt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BSS가 통합되고 kt의 유/무선 조직 간은 물론 본사와 협력업체 및 대리점의 관계가 점차 가까워지면서 진정 하나가 되는 것 같다고 직원들이 말씀하세요.”

BSS 통합으로 얻게 되는 궁극의 이점에 대해 이난영 강사는 구성원들의 아이덴티티 형성을 들었다. 'kt'라는 커다란 지붕 아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동안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 같은 식구임에도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았던 것. 구성원들의 그런 답답함을 알았는지 마치 시원하게 힐링이라도 해주듯 지난 9월 23일 제네시스가 1차 그랜드오픈을 맞았다. 거창한 세레모니가 열릴 것이란 기대를 했다면 크나큰 오산, 분당 kt 본사 로비는 마치 전투가 한창인 격전지의 모습 그대로다. “지난 추석연휴를 마치고 아침 일찍 출근했을 때 BSS 개발자들이 연휴 내내 밤새워 일하고 로비 벤치에 누워 새우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난민수용소 같은 분위기였어요. 내일 모레 당장 오픈인데 지역본부나 대리점에선 오류 시정이 왜 안되냐고 닦달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스템 개발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무난히 1차 오픈을 할 수 있었어요.”

'결레'가 된 시스템을 살리는 해법

본사 1층과 3층 한 칸의 널찍한 홀에는 BSS 솔루션 제공처인 세계 최고 수준의 오라클 프로그래머들을 비롯해 kt 직원들 수백 명이 테이블에 모여앉아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국 11개 지역본부에서 제네시스 전문교육강사로 파견되어온 22명의 직원들도 자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얼굴은 환하게 웃는 표정의 이난영 조합원이다. BSS인 제네시스가 완벽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를 개발자들에게 반영하고, 제네시스 운용 매뉴얼을 현장 직원들에게 교육하는, 말하자면 제네시스 전도사 역할을 그녀는 푹 부러지게 해내고 있다.

“아무리 많은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전산처리를 제대로 못하면 매출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고객을 상담할 때 잘 갖춰진 전산 시스템만 있다면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찾아 권할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 매출 시너지가 발생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직

원들에게 제네시스가 회사에 돈을 벌어드주는 시스템이라 설명하는 이유예요.”

이난영 조합원이 강조하듯 전산 시스템이 직간접적으로 회사에 이익을 올려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kt와 ktf가 합병되고 2010년 통합 시스템이 추진되기까지 불과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한 비효율과 불편함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직원들끼리 'ICIS가 결레가 됐다'고 말할 지경이었어요. ICIS는 스마트 상품이 나오기 훨씬 전 일반전화와 인터넷에 맞게 설정된 시스템인데 새로운 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데이터를 억지로 틀에 맞춰 입력해야 했거든요. 새로 출시되는 상품은 점점 복잡해지고 부가상품 또한 늘어나면서 폭증하는 데이터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을 서포트해줄 새로운 시스템을 직원들은 꽤나 갈망하고 있었죠.”

가름에 대비와도 같은 BSS, 현재 진행상황은?

BSS 오픈은 현재 단계적 구축을 적용시키는 그린필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내년 2월, 2차 오픈 예정을 목표로 지난 9월 23일에 1차 그랜드오픈에는 고객조회, SR/TT, 캠페인, B2C 영업활동이 오픈됐으며, 최종 2차 오픈까지는 N-Step, ICIS와 함께 제네시스가 고객들의 주문 및 온전한 개통처리를 위해 병행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SR/TT만 하더라도 종전 2623개의 유/무선 상품을 제네시스에서는 1100여 개로 줄여 입력을 마쳤고요. 무려 7000개가 넘었던 전체 상품 수도 237개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많은 상품 중에는 고객이 단 한 명만 이용하는 상품도 있고, 이용하는 고객이 없는데도 이해관계로 인해 시스템에서만 존재하는 상품도 있거든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시스템 통합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일인지 몸으로 체험하는 중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 작업만큼이나 이난영 조합원이 중요



하게 여기는 것이 구성원들에게 새 시스템을 소개하고 교육시키는 일이다. 아마 제네시스를 다뤄본 사람이라면 작은 글씨로 화면 가득 펼쳐진 메뉴를 보고 다들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유/무선 따로 시스템이 운용됐을 때는 각자 필요한 정보만 표출되었지만 시스템이 통합되면서 유/무선 모든 정보는 물론 고객센터에서 필요한 항목들마저 모두 표출되기 때문에 kt 구성원들이 제네시스를 처음 접하면서 대부분 '복잡하다'는 선입견을 갖기도 했을 것이다.

“정년퇴임을 앞두고 직무를 변경한 직원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려워해요. 더구나 오랫동안 근속하면서 이것저것 복잡한 시스템을 배우느라 피로해져 있거든요. 우스개로 '시스템에 상품 입력하는 게 겁이 나 상품을 못 팔겠다'고 말하거든요.” 바로 이런 구성원들을 위해 이난영 조합원이 알려주는 팁이란 바로 '제네시스를 인터넷쇼핑처럼 쉽게 대하라'는 것이다.

“물건을 카트에 담아, 배송지를 입력하고, 결제방식을 선택하는 일련의 정해진 과정이 인터넷쇼핑에 있어요. 복잡해 보이는 제네시스도 고객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주문상품을 선택해, 오더를 내리는 과정은 인터넷쇼핑과 많이 비슷하거든요. 우스갯소리 제네시스를 잘 익히기 위해 인터넷쇼핑 많이 하라고 권하곤 합니다.”(웃음)

새 시스템 덕에 활력도 얻고, 웃음도 전파하고

제네시스 전문교육강사로 파견되어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이난



영 조합원은 사실 “회사가 힘든데 너무 돈 쓰는 거 아닌가”하고 시스템 통합을 시큰둥하게 여겼다고 한다. 하지만 10년 이상 kt플라자에서 고객을 응대하면서 노후한 시스템에 대해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늘 느껴왔기 때문에 본사로 파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열혈 제네시스 전도사로 변신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고객을 응대하는 그녀의 오랜 경험은 직원들을 교육하는데 진가를 발휘하는 든든한 밑천이 되어 주었다.

“가장 효과적인 건 제가 겪은 경험이나 오류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고객에게 피해를 끼쳐 손해를 배상한 적이 있거나 어려웠던 경험을 서로 이야기하며 공감이 형성되면 시스템을 설명할 때도 설득력이 높아지거든요. 저에게 특별한 강의 스킬은 없지만 풍부한 현장경험을 통해 전산교육의 효과를 확실히 끌어올릴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난영 조합원이 직원들로부터 얻은 공감은 곧장 신뢰로 이어졌고 그녀가 근무하는 현장으로 금시 피드백이 되어 돌아오곤



Business Support System Grand Open

한다. 지역본부와 대리점 등 현장에서 제네시스를 다루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직원들이 애타게 찾는 사람은 옆에 있는 동료가 아닌 멀리 본사에 있는 이난영 조합원이다.

“제네시스를 운용하면서 직원들의 불편함을 들어주는 창구가 사실상 없거든요. '동료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창피해서 하는 수 없이 이곳으로 전화를 걸었다', 며 하소연하듯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최대한 아는 데까지 설명 드리고 나서 '언제든지 또 거세요'라는 말도 잊지 않고 남깁니다.”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주고 싶다’는 이난영 조합원은 이번 교육강사 파견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다질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새 통합 시스템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위한 메시지 역시 잊지 않는다.

“저도 처음엔 새 시스템이 무척이나 낯설게 느껴졌어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 만큼 언젠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

오는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자는 말을 하고 싶어요. 업무에 힘겨워하는 kt 가족들에게 제가 아는 모든 노하우를 전수 해서라도 웃음을 되찾아드리고 싶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이메일을 열어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무미건조한 회사 생활은 정말 싫어요. 새 통합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뿐 아니라 행복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또한 제네시스 전문교육강사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ICT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요건

부자·기업 증세 없이, 봉급생활자에겐 세금폭탄

'IT 강국 코리아'라는 수식어는 향수가 된지 오래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업계의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김대중정부 시절 OECD 선진국들과 선두 경쟁을 벌이던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산업은 현재 16위권으로 추락했다. 잘 나가던 벤처기업이 대우 받던 시절도 다 옛 얘기다. ICT 산업 관계자들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노동계도 마찬가지. 한국노총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도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정부의 향후 방침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IT사무서비스노련이 최근 성명을 통해 밝힌 주장에 대해 알아보자.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큰 틀 갖춰야

한국노총 전국IT사무서비스노련은 ICT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주장을 펴고 있다. 첫째, ICT 전담조직은 반드시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를 포괄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당초 연맹에서 주장했던 내용은 ICT 독임제 정부 부처를 신설하는 것이었다. 과거 정보통신부가 주관했던 정책들이 이명박정부 들어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로 권한과 운영이 흩어졌기 때문이다.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사라진 것이다.

둘째, 정부 차원의 ICT 산업 규제와 진흥은 통합 기관에서 주관해야 한다. 통신망 구축을 위한 투자는 장려하는 한편 통신요금 인하 등 규제 정책을 펼치는 균형 유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 물론 통합 조직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내부담합 등의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의 투명성 확보로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다. 역할과 권한의 분리를 통해 비위를 견제한다는 것이 오히려 안이한 주장이다. 규제와 진흥에 관한 정부 정책은 탁상공론에 가깝다. 업계의 현실과 각 기업의 형태나 규모, 각 사업 부문의 현황이나 트렌드 등 구체적인 현실에 맞춘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기보다 각자의 역할에만 국한돼 있다. 끊임없이 균형이 어긋나는 구조로 인해 대형 기간통신 사업자는 물론, 소프트웨어 사업자, 중소·벤처기업 등 ICT 종사자들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

ICT 산업 불균형 문제 심각

ICT 산업은 자동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업종들이 얽혀 ICT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ICT 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분류하는 이유다. 무엇을 창출하느냐에 따라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로 구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력과 기술, 시장, 자금, 경영, 문화 등 다양한 부문의 순환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ICT 산업은 불균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제조업 부문과 마찬가지로 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중소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ICT 노동자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65.2시간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2년 한국의 근로시간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긴 주당 44.6시간인데, 이보다 20.6시간을 더 일하는 셈이

다. 이와 같은 장시간노동 문제는 저임금 문제와 연결돼 있다. 평균 임금은 3,191만 원인데, 하루 8시간의 기본 근무로 계산하면 6년 경력자 임금이 2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장시간 노동문제는 대기업을 막론하고 비슷한 실정이다. 특히, 먹이사슬의 최하층에 존재하는 ICT 노동자들은 더욱 심각하다. 하청에서 재하청으로 내려가는 다단계 구조에서 통상 하부단위로 한 단계 내려갈 때마다 수주단가의 10~30%가 감액된다. 결국 기업의 손실을 노동자의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으로 보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노사관계 개선만으로 이 같은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기란 쉽지 않다. 왜곡된 ICT 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산별 연맹이 꾸준히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지속하려는 이유다.

ICT 산업 관련 기금 현실화 절실

한편, ICT 산업 관련기금의 운용에 관한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1993년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마련된 관련기금은 현재 방송발전기금과 통합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관리 운용되고 있다. ICT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향상, 역량 개발을 위해 쓰여야 할 기금이 지원 분야나 집행 분야 별로 연계성이나 통합성이 결여된 채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관련기금의 심의운용위원회에 ICT 노동자의 대표성을 가진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복지 확대를 위한 연기금 규모를 확보하고 역량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업 생태계의 순환 구조에 맞춰 기금이 통합적으로 쓰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보고 싶은 얼굴, 목소리에 눈물 흠쳐도 마음은 날아갈 듯 행복합니다.

UCC, 한 - 베트남 다문화 가정 화상상봉 진행

5일간 40가족 만남 주선... 의료봉사,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도 병행

노사문화 혁신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kt노사가 주도해 발족한 기업간 노사협의체 UCC(Union Corporate Committee)가 지난 9월 2일부터 6일까지 베트남에서 'UCC 다문화 가족 화상면회 및 봉사활동'을 펼쳤다. 대상이 된 40가족은 여성가족부의 협조를 받아 전국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선정했으며, 화상면회 장소는 베트남 kt하노이 사무소와 한국의 KT지방본부를 활용하여 5일간 부산, 대구, 충남 등 한국의 전국 각지에서 시행됐다. UCC는 특히 건강검진 등 의료봉사와 베트남 현지 가족 주거환경 개선, 현지 장애인 단체 PC 기증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병행하여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의 빠른 한국적응을 돕는 한편, 한국 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로 베트남-

한국 민간교류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화상 재회에 통역, 봉사단원도 함께 울고 웃어

권태롭고 지루한 일상처럼 익숙하고 만만해서 그저 당연하게만 느껴지는 공기가 같은 사람, 그러나 치열한 세상에서 상처 받고 내쳐졌을 때,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목직한 바위처럼 기다려주는 사람.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가족은 생각하면 할수록 먹먹한 내 몸의 가지들이다. 부족한 나를 그 어떤 이해와 상식으로 넘어 오롯이 보듬어주는 내 몸의 피와 살이다. 징글징글하면서도 몽클한 이 가족이라는 속성이, 인종과 국적이 다르다고 덜할까. 생김새도, 문화도 낯선 머나먼 타국에 딸 자식을 시집 보내놓고, 흑여 뉴스에서 안 좋은 소식이라도 접하는 날엔 가슴이 철렁거리는 날이 어찌 없었을까.

딸 부잣집인 봉티홍씨의 가족도 그랬다. 숫기는 부족하지만 심성이 고운 만사위와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큰 딸 떼에, 둘째와 셋째 등 딸 셋을 모두 한국으로 시집 보낸 터라 소식이 뜸하면 이런저런 괜한 걱정부터 앞섰다. 상봉장에서 만난 봉티홍씨의 아버지인 당 티호옹씨는 부모 마음이라 어쩔 수 없노라 면서도 밝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아마도 우리 집 아이들이 한-베트남 다문화 가정의 성공적인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셋 다 같은 나라에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니 자기들끼리 의지도 되고 도움도 주고 받으면서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래도 간혹 신문에서 한-베트남 커플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읽으면 마음이 무겁죠. 전화통화를 종종 하기는 하지만, 오늘처럼 얼굴을 보고 화상상봉을 하니, 밝고 건강한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한결 마음이 가벼워 집니다." 화상상봉 내내 웃음과 덕담이 끊이지 않았던 봉티홍씨 가족. 그러나 모든 한-베트남 가족이 다 이와 같은 분위기였던 것





은 아니다.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팔손의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마음 고생이 적지 않았던 탓일까. 9년 전 결혼해 한국으로 이주한 썬영티타오씨는 시종일관 눈물을 보여 지켜보는 봉사단원들 마저 훌쩍거리게 했다. 썬영티타오씨는 “부질없는 짓인 줄 알면서도, 만약 고향을 떠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며 내내 울음을 삼키느라 대화가 자주 끊기곤 했다. 9년 만에야 비로소 얼굴을 마주하게 된 딸자식의 그치지 않는 눈물을 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썬영티타오씨의 아버지는 그 옛날 어려웠던 시절, 우리네 아버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아버지는 오열하는 만말의 상황이 못내 가슴 아픈지 들릴 듯 말 듯 낮은 한숨을 쉬었다가도 이내 ‘어려우수록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지, 힘들다고 아이들 앞에서 내색하면 되겠느냐’며 몇 번을 타이르듯 다독였다. 썬영티타오의 아버지 ‘즈영 옥 덩’씨는 ‘나이 많은 사위가 실직한지 몇 해 되어 딸이 조금 힘든 모양’이라며 “베트남에 있던 처녀 시절엔 통통하고 흰 피부를 가진 아이였는데, 화면에 나온 모습을 보니 너무 마르고 얼굴도 까매져 마음이 아프다’고 아쉬운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즈영 옥 덩 씨는 이어 “자식이 둘이나 있는 만큼 딸아이가 위기를 잘 극복하고 곧 웃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며 ‘kt에서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도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지 모르겠다. 염치없는 부탁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딸 가족에게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어린 인사를 잊지 않았다.

UCC봉사단은 화상상봉과 함께 건강검진 봉사도 이어갔다. 172명의 베트남 가족을 위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파견된 의료진을 통해 실시된 의료봉사는 베트남 가족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순조로이 진행됐다. 김진결과 수축기 혈압 수치가 무려 200이 넘게 나온 레티흐영씨는 “육십 평생 건강검진이라는 것을 처음 받아봤기 때문에 이제껏 내가 고혈압인 것도 모르고 살았다”며 “선생님들이 챙겨주신 혈압 약 잘 챙겨먹고 운동도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또한 다리에 입은 화상을 수 개월간 방치해 진물과 통증을 달고 살던 부이티웃씨도 소독치료를 마친 후, ‘우리 집은 하노이에서 8

시간을 더 들어가야 하는 오지라 병원출입이 쉽지 않았다’며 “덕분에 통증이 많이 가셔서 한결 몸이 가벼워졌다”고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UCC봉사단은 이외에도 베트남 현지가족의 집수리 봉사활동, IT서포터즈의 IT기기 체험교육, 베트남 장애인단체에 PC 50대 기증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해 현지가족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베트남 언론의 뜨거운 취재 열기,

UCC 활동 집중 조명

UCC의 베트남 활동은 국내뿐 아니라 베트남 현지에서도 많은 화제가 되었다. 특히 화상 상봉장인 kt하노이 사무실은 직접 취재를 나온 베트남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 열기로 연일 뜨거웠다. 베트남 최대 민영 방송인 ‘VTC’와 신문사인 ‘베트남 공산당’ 등에서 나온 25명의 현지 기자단은 kt를 비롯한 UCC 회원사 등 한국 봉사단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기자회견은 KT노동조합의 조직실장이자 UCC 단장인 최장복 단장의 UCC 소개와 봉사활동 취지 등에 관한 브리핑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베트남 기자들은 ‘화상상봉도 좋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직접 방문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모든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다 행복한 것 같지는 않다’며 ‘어려움에 처한 일부 베트남 이주여성을 위해 국가나 민간차원의 도움이 있는지’를 묻기도 했다.

이에 최장복 UCC 단장은 ‘한국에 온 결혼이주여성 중 베트남 여성이 가장 많은 만큼, 그 2세들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이 때문에 정부나 민간기업 등의 지원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kt노사와 UCC 회원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족이 더욱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형제의 나라’,

VNPT, ‘내년부터는 봉사활동의 일익을 담당하겠다’ 약속.

한편 KT노동조합은 봉사활동이 진행되는 기간에 상호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 있는 베트남 우편통신노동조합(VNPT노동조합)을 방문, 새로 취임한 부이 반 호안 위원장을 만나 취임을 축하하고 향후 공동관심사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VNPT노동조합을 예방한 KT노동조합 최장복 조직실장은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양국의 노동조합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라고 말한 뒤 “앞으로 양 노동조합의 더욱 활발한 교류를 통해, 우정을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부이 반 호안 VNPT노동조합 위원장은 “방문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폭넓은 현안 논의를 기다리고 있겠다”고 화답,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예방한 자리에서 최 단장은 VNPT의 응웬 투이 후웬 부위원장에게 이날 오후 있을 베트남 가족 만찬회에 증중적으로 초대를 했고, 후웬 부위원장은 뽀뽀한 일정에도 참석을 흔쾌히 수락, 하노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만찬장에도 친히 찾아와 봉사단의 노고를 치하하고 한-베트남 가족을 독려했다.

“베트남에는 인연이 있으면 천리밖에 있어도 만나고, 인연이 없으면 이웃에 있어도 만나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더욱 더 베트남과 한국이 진정한 친구의 나라, 한 가족의 나라가 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VNPT노동조합에서도 UCC봉사활동에 참여하겠습니다. kt가 주축이 되어 이렇게 좋은 활동을 펼쳐주시는 데, 베트남의 책임 있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구경만 할 순 없죠.”

이념, 계층, 국경을 뛰어넘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UCC 봉사활동. 금번 성공적인 베트남 현지 봉사의 안착으로 향후 UCC의 활동이 더욱 확대되기를, 한-베트남 양국의 국민들이 뜨거운 응원과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





소금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보물섬, 증도

이것은 프랑스대혁명의 시작이자, 건강과 번영의 여신 '살루스(Salus)'와 봉급생활자를 뜻하는 샬러리맨의 '샬러리(salary)'와도 같은 어원이다. 생명의 근원이자 바다의 본질인 이것은, 소금이다. 소금은 곧 삶이고 생명이다. 증도에서는 더욱 그렇다. 신안군 증도에는 소금과 생명, 소금과 사람이 공존한다. 짠 바닷물에서 하얀 소금 결정이 얻기까지, 사람은 수 백 번의 고무래질을 반복한다. 뜨거운 태양과 온화한 해풍으로 얻은 귀한 소금만큼, 증도에는 값진 보물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신이 내린 축복의 땅, 증도

증도는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에 위치한 섬이다. 예부터 섬 전체에 물이 없다가하여 시리('시루'의 방언)섬이라 불렸다. 1953년 한국전쟁 후 피난민의 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해, 서로 떨어져 있던 전증도와 후증도를 독으로 연결해 그 사이에 염전을 조성하면서 증도가 불리게 되었다. 증도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갯벌 염전이 펼쳐져 있다. 갯벌 염전의 환경적 가치를 지켜온 덕분에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의 일원이 되기도 했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은 슬로시티 선정 이유에서 증도를 '신이 내린 축복의 땅'이라고 밝혔다. 증도 갯벌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탐사르 습지로도 지정되었다. 세계적으로 갯벌 염전이 점차 사라져가는 추세 속에서 자연과 생명이 공존하는 증도의 가치가 더욱 빛나는 이유다. 한편 증도는 자전거 섬으로도 유명하다. 400여 대의 자전거가 우전해수욕장과 짱뚱어다리, 태평염전 등 섬 곳곳에 비치돼 무료로 운영된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해 섬 구석구석을 둘러볼 수 있다.

문의 | 신안 갯벌센터 061-275-8400

태평염전

박물관 옆 소금밭 낙조 전망대에 오르면 태평염전이 한눈에 바라다 보인다. 목재 창고 좌우로 늘어선 염전의 크기가 무려 462만㎡에 달한다. 이곳에서 나는 소금은 전국 생산량의 6%로 연간 1만 5천 톤에 달한다. 품질 역시 최고로 꼽힌다. 염전 내 갯벌 습지에서는 함초, 나문재, 칠면초, 해홍나물 등 다양한 종류의 염생 식물을 구경할 수 있다. 약 220m의 탐방로를 따라 걸으며 짱뚱어, 칠게, 방게, 고동 등 갖가지 갯벌 생물들도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다. 형형색색의 염생 식물 군락 사이에 60여 채의 소금창고가 도열해 있는 모습은 쉽게 만날 수 없는 장관을 선사한다. 태평염전은 소금밭체험 프로그램과 소금을 주제로 한 소금 레스토랑, 소금 동굴 힐링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문의 | 태평염전 소금밭 체험 061-275-0829



태평염전 (사진 : 신안천일염)



태평염전 염생식물원 (사진 : 한국관광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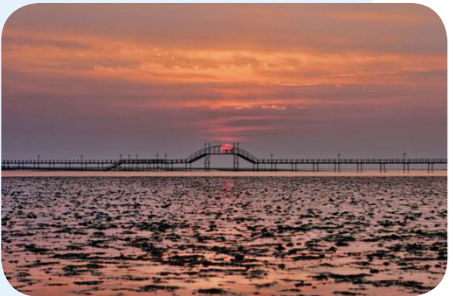


소금박물관 전경 <사진 : 한국관광공사>

소금박물관

증도에는 소금과 염전의 가치를 일깨울 수 있는 곳이 있다. 국내 유일의 소금박물관이 그것이다. 1945년 염전 조성 초기에 건축된 소금창고를 개조해 2007년 박물관으로 재탄생시켰다. 소금의 역사를 사회·경제·문화·예술·기술사적으로 재조명해 소금에 대한 지식과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다. 생명의 원천인 바다와 생명 유지에 필수인 소금의 중요성, 소금과 인류를 주제로 이어지는 내용이 알차다. 소금박물관은 근대 석조 건축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한 중요 건축물로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문의 | 소금박물관 061-275-0829 saltmuseum.org



짱뚱어다리 일몰 <사진 : 신안군청>

짱뚱어다리

소금밭 사잇길을 지나면 짱뚱어다리가 나타난다. 짱뚱어다리는 증도의 명물이다. 드넓은 갯벌을 가로지르는 길이 470m의 목교로 갯벌의 자연 생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밀물 때 바다에 잠겼다가 썰물 때 갯벌 위로 드러난다. 물이 들면 마치 바다 위를 거니는 듯 한 느낌을 준다. 썰물 때는 갯벌에서 뛰노는 짱뚱어와 농게, 칠게, 갯지렁이 등 살아있는 갯벌 생태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짱뚱어다리에서 바라본 증도의 일몰과 별이 쏟아질듯 한 밤하늘이 환상적이다. 다리 위에서 바라보다 보이는 어촌마을 풍경도 평화롭다.

우전해수욕장

짱뚱어다리를 건너면 은빛 모래의 우전해수욕장 해변에 닿는다. 길이 4km, 폭 100m의 눈부신 백사장이 이국적인 정취와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해수욕장 뒤로는 해송 숲이 울창하다. 숲의 모양새가 한반도 지형을 닮았다고 해서 '한반도해송숲'으로 불린다. 한반도 모양을 선명하게 보려면 증도에서 가장 높은 상정봉에 오르면 된다. 증도면사무소 옆으로 난 등산로를 따라 약 20분 정도 오르면 정상이다. 은빛 해변과 해송 숲, 해수욕장 앞바다에 접점이 떠 있는 90여 개의 무인도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인근 숲속에서는 캠핑을 즐길 수 있어 여름철 피서지로도 안성맞춤이다.



우전해수욕장 <사진 : 엘도라도리조트>

보물섬 해안일주도로

증도는 보물섬으로도 불린다. 1976년 중국 송·원 시대 유물이 바다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다. 14세기 중엽 일본으로 가던 중국 무역선이 침몰해 당시 도자기, 동전 등 모두 2만 3천여 점의 유물이 인양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다. 증도 북서쪽 끝에는 신안 해저유물매장지역 기념비가 서 있다. 이 기념비 아래 해안 절벽 위 전망대에서 바다로 2km 거리가 해저유물 인양 지역이다. 기념비 일



증도 앞바다 <사진 : 신안군청>

대는 증도에서도 일몰이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힌다. 호룡섬, 도덕도, 대단도 등 크고 작은 섬들이 어우러진 풍경이 운치 있다. 배 모양의 '보물섬 카페'도 인기 있다. 해저유물비 전망대를 지나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해안 일주 도로에서는 증도의 아름답고 드넓은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증도 '모실길'

증도 구석구석을 걸으며 사색에 잠겨 보는 것도 좋다. 증도 모실길은 해안을 따라 총 5개 코스에 42.7km로 조성된 탐방로다. 노을이 아름다운 사색의 길, 보물선 순교자 발자취길, 천년 해송숲길, 갯벌공원길, 천일염길 등 이롭도 매력적이다. 원하는 코스를 따라 해안을 돌며 증도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 중 갯벌공원길 코스의 화도 노두길은 증도의 대초리에서 화도를 잇는 길로, 만조 때가 되면 길이 바닷물에 잠기기 때문에 미리 물때를 알고 건너야 한다. 증도 모실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문화생태탐방로에 선정되기도 했다.

- 1코스** 노을이 아름다운 사색의 길 - 10Km/3시간
주차장 → 구분포 → 염산마을 → 염산포구 → 방축 → 나룻구지 → 노을섬터 → 하트해변 → 해저유물발굴기념비
- 2코스** 보물선, 순교자 발자취길 - 7km/2시간
해저유물발굴기념비 → 만들독살 → 검산항 → 오산슬로푸드 → 상정봉 → 증도면사무소 → 문준경순교비 → 순비기전시관 → 짱뚱어다리
- 3코스** 천년해송숲길 - 4.6km/1시간 30분
짱뚱어다리 → 천년해송숲 → 갯벌전시관
- 4코스** 갯벌공원길 - 10.3km/3시간
갯벌전시관 → 우전마을 → 대초슬로체험장 → 덕정마을 → 노두길 → 화도갯벌이야기체험장 → 노두길
- 5코스** 천일염길 - 10.8km/3시간
노두길입구 → 장성동마을 → 갈대군락지 → 태양광발전소 → 소금전망대 → 소금박물관 → 태평염생식물원 → 주차장



증도 모실길 '천일염길' <사진 : 한국관광공사>

유한한 삶의 매력



부여에 갔다가 운 좋게도 궁남지에 수련이 가득 핀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꽃 하나하나가 정세에 물들지 않은 선비처럼, 기품 있는 여인처럼 맑고 고고했다. 탁한 물에서 이렇게 맑은 꽃을 피우다니 그 높은 덕망의 경지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곧 꽃의 공덕이 꽃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꽃의 고결함을 지켜주기 위해서 뿌리와 줄기 그리고 잎들이 말없이 더러움을 감당하고 있었다. 물에서 양분을 뽑아 깨끗한 것만 걸러내어 꽃으로 공급해주느라 그것들은 어찌면 찌꺼기만 먹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이렇듯 다른 부분들을 모두 희생시키더라도 꽃만큼은 최고로 정결하고 향기로워야 할 만큼, 식물에 꽃은 최상의 가치이자 존재 이유임에 틀림없다.



윌렘 반 알스트(Willem van Aelst, 1627~83년경),「꽃 작품」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윌렘 반 알스트(Willem van Aelst, 1627~83년경)가 그린 「꽃 작품」을 소개한다. 꽃으로 유명한 나라답게 네덜란드에는 꽃을 그린 화가들이 많다. 꽃그림은 주로 허무함과 관련된 상징물들과 함께 그려지곤 했다. 「꽃 작품」에서는 바로크 스타일의 검은 바탕 위로 조명을 받은 듯 선명한 색채의 꽃들이 두드러져 보인다. 꽃의 전성기임을 말해주듯 나비들이 앉았다. 그런데, 그림 안에 어떤 상징적인 물건이 우연을 가장한 채 슬그머니 놓여있다. 오른쪽에 있는 포켓용 시계이다. 시계는 시간의 흐름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 아름다운 꽃들이 시간의 흐름에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그려진 것이다. 아름다움이란 시간 앞에 얼마나 무력한가. 생의 유한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도서」는 성서중 가장 조심스럽게 읽어야 하는 글로 알려져 있다. 자칫 생을 비관하는 염세주의라든가 무기력을 정당화하는 글로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유한하다는 이유만으로 생이 헛되다고

시간 앞에 선 우리의 삶은 무력하다

그렇게 인내하며 피워낸 꽃이건만 꽃은 허무하게도 금방 시들어버린다. 그런 이유로 꽃은 줄곧 인생무상을 의미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모든 수고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성서 중 「전도서」의 일부이다. ‘해는 높이 떴다가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바람은 그토록 약삭빠르게 불다가도 결국에는 불던 곳으로 돌아가며, 강물은 철철 넘쳐 바다로 흐를지라도 바다를 다 채우지는 못한다」고 「전도서」는 전한다. 인간이 제아무리 파란만장한 삶을 펼쳐본다 한들 세상은 새로울 것이 없고 세대는 그저 반복될 뿐이라는 것이다. 꽃 역시 아무리 어렵게 봉오리를 터뜨렸어도 곧 사라질 운명하기에 그 노력이 다 소용없는 듯 느껴진다.

할 수는 없다. 허무함이라는 단어는 꽃처럼 찬란해본 적이 있는 생에 대해서만 쓸 수 있다. 단 한 번도 피워보지 못한 생을 살았던 이가 삶이 허무하다 말할 수는 없다..

지더라도 피어나야 꽃이다

꽃에 얽힌 전설이나 신화를 보면 식물이 꽃을 피우기까지 얼마나 공을 들이며 기다리는지 짐작할 수 있다. 영국 왕립 아카데미 원장을 지냈던 프레더릭 레이턴(Frederic Leighton, 1830~96)이 꽃과 관련된 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그린 그림이 있다. 작품의 중앙에서 온 몸을 활짝 열어 하늘을 향하고 있는 여인이 바로 그림의 제목이기도 한 클뤼티에이다. 물의 요정인 클뤼티에는 태양신 아폴로를 짝사랑하여 늘 태양이 수면 위로 떴다가, 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고개를 뒤로 젖힌 자세로 꼼짝하지 않고 태양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떠있는 동안 물 밖으로 나오면 수분이 모두 말라버려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

클뤼티에의 유일한 소원은 아폴로가 단 한번만이라도 자신에게 눈길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녀는 양 손을 벌리고 얼굴을 위로 향한 채 말라죽고 말았다. 그녀의 몸은 수증기처럼 하늘로 퍼져 올라갔고, 죽은 자리에는 해바라기가 피어났다고 한다. 언뜻 듣기에 사랑을 얻지 못한 슬픈 짝사랑의 이야기로 들리지만, 짝사랑 정도에서 끝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이는 한 식물이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자 고통과 외로움을 참고 견뎌냈으며, 장하게도 마침내 꽃으로 피워낸 기적의 이야기인 것이다.

이번에는 꽃의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꽃이 된 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세 마리의 개를 키우는 어느 시골집이 텔레비전에 나왔다. 개 이름은 각각 백구, 진순이, 노랑이이다. 백구와 진순이는 혈통 있는 순종답게 양지바른 앞마당에 터를 잡고 있다.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집 뒤쪽으로 가보니 노랑이가 산다. 노랑이는 백구나 진순이와는 달리 조상을 알 수 없는 못생긴 잡종견이다. 대문을 들었을 때 노랑이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 게다가 허드레 잡종사니만 잔뜩 쌓아놓는 음지라 굳이 거기까지 들여보는 사람도 없는 것 같다. 주인 할아버지도 하루 한두 번 밥만 부어주고 간다고 한다.

노랑이는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무언가 해야만 했다. 구석에 버려져서 뒤집어져 있는 손수레 바퀴를 발로 굴러보기

시작했다. 매일매일 굴리다 보니 마치 곡예사가 묘기를 부리듯 능숙하게 네 발로 뛰면서 바퀴를 돌릴 수 있게 되었다. 노랑이의 짧은 네 다리는 근육이 불거져 올라와서 말의 다리처럼 단단해졌다. 간혹 바퀴 사이에 끼어 다친 흔적이 다리 여기저기에 남아 있기도 했다. 무심하던 주인은 노랑이의 재주가 자랑스러워서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구경시켰다. 주인집의 이름도 어느덧 ‘노랑이네 집’으로 불리고 있었다. 해가 들지 않는 노랑이의 집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드는 중심이 되었다. 노랑이는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것이다. 그 시린 외로움을 이겨내고 노랑이도 마침내 꽃을 피워냈다. 존재감을 느껴보기 위해 시작한 일이 주변에 처박혀 있던 자신을 세상 속으로 꺼내놓은 셈이었다. 꽃이 되는 일이란 그런 것이다. 세상의 중심에 스스로를 세우는 일이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꽃을 피운 생은, 그 꽃이 사라진다 해도 영원히 꽃이다.

출처 | 이주은 <그림에 마음을 놓다> 앨리스



프레더릭 레이턴(Frederic Leighton, 1830~96년경),「클뤼티에」

Voices of Readers

고객의소리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은 더 좋은 [마음이 통하는 '길']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마음이 통하는 '길']을 읽은 느낌과 생각을 (kgb@kt.com)으로 보내주세요.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락지사 mass고객1팀 서성제

길에서 "유유자적 느끼게 걷기"라는 내용을 잘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여행지가 있구나 생각이 들고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조만간 무더운 여름이 기승을 부리고 곧 천고마비의 계절 선선한 가을이 다가옵니다.

고령화되고 있는 KT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여 즐기며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알려주세요.

주안지사 Retention팀 황정희

'이 번호의 황금 주파수는 국민에게' 잘 읽었습니다.

만화로 쉽게 풀어 써 내용이 어렵지 않게 전달 되었습니다. 다음호에는 주파수 할당에 관련 된 진행 상황과 상세한 내용도 듣고 싶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길' 화이팅!!

충청단 집중운용센터 전원관리팀 김중수

올해 하반기 최고 화두는 주파수 경매가 아닐까요?

길에 실린 기획특집 황금주파수 대환란 무엇이 문제인가?

상세히 실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고객본부 CS품질개선팀 이선재

'마음이 통하는 길' 잘 읽어 보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많이 전해져 조합원들이 힘과 용기를 얻는 좋은 길이 되기를~

대구네트워크운용단 집중운용센터 IP망팀 신병구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주파수 경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어 더욱 유익했습니다.

충남고객본부 세종지사 SMB 지원팀 오상진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매번 조합원들에게 회사내 소식을 알기 쉽게 전달해줘서 감사합니다.



KTTU QUIZ

kt노사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 7개의 회원사와 함께 설립한 국내 최초의 기업 간 노사협의체는? (힌트: 소식지 24페이지 참고)

정답 보내주실 곳 : kgb@kt.com(김근배 홍보국장)

※ 보내주실 때 반드시 **이름/소속/연락처/주소**를 함께 기재해 주셔야 상품권이 배송됩니다.

ANSWER

정답과 함께 소식지 '길'을 읽고난 소감을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다운플랜, 전국 웨딩협력사 안내

(주)다운플랜에서는 회원님에게 좀더 질 좋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아래와 같이 웨딩협력사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웨딩 협력사	대표 또는 실무자	연락처	주소
서울	루미에스튜디오	김석진	02-511-5491 010-8920-2017	강남구 논현동 246-3
부산	김수영웨딩	김수영	051-635-2030 010-8848-2375	진구 범천1동
울산	목화예식장	윤정미	052-260-5555	남구 달동 1252-1
창원	MJ웨딩	이재문	055-264-0066 010-7400-4007	의창구 명서동 206-3
대구	플로라웨딩	김정희	053-431-1101 010-7164-0007	중구 대봉동 41-4
포항	티파니 웨딩홀	이미란	054-283-0077	남구 대도동 169-3
광주	마이웨딩	김영학	062-225-3861	동구 남동168-6
대전	연수원컨벤션	김윤오	042-535-7788 010-3453-6292	괴정동 KT인재개발원
대전	웨딩그룹정일품	유병무	042-242-0077 010-5435-6370	중구 은행동 125-7
전주	마리한웨딩	김인덕	063-232-2661	완산구 중앙동 상가
춘천	결만사	배정삼	033-244-4058 010-4538-0873	효자2동 647-6
제주	웨딩그룹	박종삼	064-748-0080	노형동 2494-8

- 각 웨딩 협력사에 대한 상품 내용은 협력사 마다 다르며, (주)다운플랜 회원님에게 좀더 질 좋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협력사 마다 특징점을 살려 계약되었습니다.
- 각 웨딩협력사별 상품 내용은 협력사로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 각 웨딩 협력사는 점차적으로 확대 보강할 예정이며, 다운플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운 1호 또는 다운 1-13호 가입회원은 모두 사용가능하며, 다운2, 3호 가입회원은 나머지 금액을 100% 환불하여 드립니다.

문의
신청

1577-1555
www.daonplan.com

 다운플랜